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746호, 제74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
4. 회부일자 : 2019년 6월 3일

II . 세입·세출 및 기금 개요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223억 2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1억 7천 1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21억 9천 7백만원임.
 - 세출예산현액 2,486억 7천 4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277억 5천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6천만원, 집행잔액은 149억

9천 4백만원임.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은 사회투자기금 1종으로,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97억 2천 5백만원, 사용액은 133억 6천 4백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88억 8천 1백만원임.

Ⅲ.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31억 7천 1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223억 2백만원 대비 99.5%인 221억 9천 7백만원을 수납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총 3억 6천 5백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총 67억 9천 1백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임.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총 150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음.
 - 미수납액은 총 9억 7천 4백만원으로 모두 다음연도 이월액임.

2. 세출 결산

1) 총괄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53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 2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486억 7천 4백만원임.
- 이 중 2,277억 5천 5백만원(91.6%)이 지출되었고, 58억 6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9억 9천 4백만원(6.0%)은 집행되지 않았음.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19억 3천 8백만원으로 전용을 통하여 증액된 사업과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	17억원
-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9천만원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1천 8백만원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1억 3천만원

3)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 5억 9천 9백만원으로 변경사용 발생 사업과 금액은 다음과 같음.

- 노동복합시설 조성	1억 4천 2백만원
- 노동복합시설 조성	5천 7백만원
-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4억원

4)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5천 9백만원이며, 명시이월은 2건, 8억 4천 6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4억원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4억 4천 6백만원

- 사고이월은 총 2건, 50억 1천 3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	17억 8천만원
- 노동복합시설 조성	32억 3천 3백만원

5) 집행잔액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49억 9천 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0%)임.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223억 2백만원에서 8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231억 7천 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1억 9천 7백만원을 수납했음(징수결정액 대비 95.8%).

〈표1〉 2018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2,302	23,171	22,197	974	95.8
세외수입	6,380	8,130	7,156	974	88.0
경상적 세외수입	292	382	365	17	95.5
재산임대수입	292	58	51	7	87.9
공유재산임대료	292	58	51	7	87.9
사용료수입	0	226	226	0	100.0
기타사용료	0	226	226	0	100.0
이자수입	0	98	88	10	100.0
기타이자수입	0	98	88	10	100.0
임시적 세외수입	6,088	7,748	6,791	957	87.6
기타수입	5,763	7,324	6,549	775	89.4
불용물품매각대	0	16	16	0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2,014	4,959	4,225	734	85.2
그외수입	3,749	2,349	2,308	41	98.3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지난연도수입	325	424	242	182	57.1
	지난연도수입	325	424	242	182	57.1
보조금		15,043	15,030	15,030	0	100.0
	국고보조금등	15,043	15,030	15,030	0	100.0
	국고보조금등	15,043	15,030	15,030	0	100.0
	국고보조금	3,221	2,969	2,969	0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323	10,562	10,562	0	100.0
	기금	1,499	1,499	1,499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9	13	13	0	100.0
	보전수입 등	879	13	13	0	100.0
	전년도이월금	879	13	13	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79	13	13	0	10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3억 8천 2백만원 대비 95.5%인 3억 6천 5백만원을 징수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물품매각대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77억 4천 8백만원 중 67억 9천 1백만원을 징수했음.
- 보조금은 총 150억 3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천 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임.
- 미수납액 9억 7천 4백만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 세출결산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86억 7천 4백만원이며, 이 중 2,277억 5천 5백만원(91.6%)을 지출하고 58억 6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억 9천 4백만원임.

2)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세입결산은 221억 9천 7백만원으로, 2016년 이후 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표2〉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8	22,302	22,302	23,171	22,197	974		974	95.8
2017	18,737	18,737	21,123	21,007	116	-	116	99.5
2016	17,132	17,132	20,846	20,368	478	-	478	97.7

-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2% 증가해 당초 추정 세입예산과 차이가 발생했고,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약 8.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있는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3>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부족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발생사유
공유재산임대료	292	58	△234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 부지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징수
기타사용료	0	226	226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 부지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징수
기타이자수입	0	88	88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가 발생하여 해당액 징수
불용품매각대	0	16	16	기술교육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 외 수입금을 해당목으로 징수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14	4,959	2,945	자치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집행잔액 발생하여 반납
그외수입	3,749	2,349	△1,400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예측치 보다 실제 반납금이 더 많음
지난연도수입	1,416	424	△992	보조금 미반환금을 연3천만원씩 분할납부 받음

-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시·도비 반환금 수입 결정액이 증가했기 때문임.

- 이외에도 당초 세입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기타사용료 2억 2천 6백만원,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 8천 8백만원, 불용품매각대 1천 6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음.
- 이 중 순증한 기타사용료는 당초 공유재산임대료로 징수했어야 할 한국 폴리텍 강서캠퍼스의 임대료를 잘못 징수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세입 결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4〉 당초예산 외 징수된 예산과목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기타사용료	0	226	226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 부지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징수
기타이자수입	0	88	88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가 발생하여 해당액 징수
불용품매각대	0	15	15	기술교육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 외 수입금을 해당목으로 징수

- 한편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그외수입’의 수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5〉 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실제수납액	잡수입처리사유
총 계		2,182,349	
1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7,687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2	서울지역노동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0,868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3	서울노동권익센터 보조금 반납	108,531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4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보조금 반납	7,310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5	노동복지센터 보조금 반납	781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6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환수액	2,986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7	국제청년캠프 사업비 정산	20,899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8	공정무역보조사업 집행잔액	5,925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9	GSEF사무국 사업비 집행잔액	32,171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0	아시아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보조금 집행잔액	27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1	사회적경제과 뉴딜일자리 보험료 반환	732	보험료 환급
12	공정무역 자치구 특화사업 수익금 반납	936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3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이자 반납	248	보조금 이자 반납
14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32,750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5	고용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613,873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6	취업연계 제약 마케팅 프로그램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2,179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7	대학로 일내다 보조금 집행잔액	1,285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8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험금 환급	33	보험료 환급
19	과지급된 수당반납	576	소속직원에게 착오과지급된 수당 반납
20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	1,049,050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21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험료 환급	7,218	보험료 환급
22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중복지급액 반환	6,284	착오중복지급금반납

- 세외수입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항목이기는 하나 과소 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486억 7천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453억 7천 2백만원보다 33억 2백만원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91.6%인 2,277억 5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8억 6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9억 9천 4백만원이 불용되었음.

〈표6〉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8	245,372	3,302	-	600	1,938	248,674	227,755	5,860	14,994 (6.0%)
2017	222,827	3,535	498	-	892	226,362	206,497	3,302	16,521 (7.3%)
2016	146,199	76	-	120	3,510	146,275	130,449	3,535	12,292 (8.4%)

-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6.0%로,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임.

- 또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99억원의 예산보다 많은 149억 9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의문시됨.
- 한편 사회적경제담당관의 국고보조반환금은 예산현액 9억 1천 6백만원 중 2억 4백만원(22.3%)만이 집행되어 7억 1천 2백만원의 과도한 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 보고됨.
-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당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세입세출외현금 과목으로 예치 후 반납¹⁾해야 함에도, 이를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세출결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주의가 요구됨.

〈표7〉 일자리노동정책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일자리정책담당관)	1,718	38,434	7,178	-	0	0.0
국고보조금반환금 (노동정책담당관)	8	8	8	-	0	0.0
국고보조금반환금 (사회적경제담당관)	916	204	204	-	712	77.7%

1)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시

(광역) 시·도 발생 집행잔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편성

(기초) 시·군·구 발생 집행잔액 →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 후 반납

- 사회적경제담당관은 2016~2017년도분 국고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18년 5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을 통해 부족 재원 3억 2천 9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음.
- 그러나 2018년에 실제 반환한 국비 집행잔액은 4억 3백만원에 불과해 추경을 통한 증액의 필요가 전혀 없었음.
- 이처럼 국고보조금 반환액을 잘못 추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임.

〈표8〉 사회적경제담당관 국비 집행잔액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년도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미반납액	비 고
	계	402,629	203,916	198,71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016	185,807	0	185,807	- 자치구 미교부액(152,302천원) - 이자 발생액(33,505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017	502	0	502	- 자치구 미교부액(502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16	5,014	5,014	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17	1,262	0	1,262	- 자치구 미교부액(1,254천원) - 이자 발생액(8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016	28,157	28,157	0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017	11,142	0	11,142	- 자치구 미교부액(11,004천원) - 이자 발생액(138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	2016~ 2017	112,989	112,989	0	
마을기업 육성	2016~ 2017	57,756	57,756	0	

(1) 전용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4건, 19억 3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표9〉 예산 전용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예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6,578,180	1,700,000		'18-10-30	자치구 참여자 임금 및 보험료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740,100		1,700,000		
2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무관리비	460,000	90,000		'18-12-05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사업 수요 증가로 12월 사업비 부족액 확보
		민간경상사업보조	2,844,000		90,000		
3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83,000	17,800		'18-06-27	「세계 최대규모의 공정무역 도시, 서울」 인증 달성을 기념한 공정무역 포럼 준비
		사무관리비	27,700		17,800		
4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00	130,000		'18-09-06	공정무역 자판기 운영 방식 변경(구매→임대)
		사무관리비	45,500		130,000		

- 자치구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17억 원을,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의 수요 증가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각각 전용했음.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은 공정무역 포럼 준비에 1,780만원, 공정무역자판기 운영방식의 변경(구매→임대)으로 1억 3천만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함.
-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용과 달리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로 운영 되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이 간과되고 지방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최소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이밖에 예산 전용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2)에 따라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업 2건(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이 미보고된 바, 조례로 정한 예산 전용의 의회 보고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2) 변경사용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으로, 5억 9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2)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10〉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예산 과 목			금 액		승 인 일	인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노동복합시설 조성	시설비	4,530,000	142,766		'18-02-14		체계적인 공사 및 안전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함
		감리비	40,000		142,766			
2	노동복합시설 조성	시설비	4,387,234	56,934		'18-04-27		노동정책담당관-4538호 ('18.4.27)에 의한 건설관리용역 (기술자 배치 변경)을 위함
		감리비	182,766		56,934			
3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400,000		'18-08-24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시설비	0		400,000			

- 노동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9,970만원이 변경사용되었음.
-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은 자치구 소셜벤처센터를 지원하고자 자치구 보조금으로 6억원을 편성했으나, 2억원만 지원하고 4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음.
- 예산의 변경 역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업별, 조직별, 지출대상 별로 예산의 집행 범위를 정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8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8억 5천 9백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건, 8억 4,681만원, 사고이월은 2건, 50억 1,348만원이 발생했음.
- 이는 전년도 이월 총액 33억 2백만원에 비해 17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도한 이월액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명시이월의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 명시이월 중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은 전용으로 시설비 4억원을 확보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사 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이월됐음.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은 정부 추경을 통해 6개월분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서울시 추경(9월)과 사업 선정(2개월)으로 지연되어 4억 4,681만원이 이월됐으며, 그 결과 예산현액 대비 28.6%(2억 858만원)만 집행됐음.
 - 이처럼 명시이월 사유의 대부분은 사전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자체 추경 편성과 후속 과정을 신속히 진행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

〈표11〉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시설비)	400,000	-	400,000	-	국유개발재산인 역삼나라 A빌딩 일부를 (3~4층) 허브센터로 조성하고자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자체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지연. '19년 공간조성 공사 시행예정
2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9,000	208,575	446,807	49,078	행안부에서 정부 추경을 통하여 6개월분의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서울시 추경이 9월에 이뤄졌고 사업 선정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됨

○ 사고이월의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 근로자복지관과 노동복합시설(전태일 기념관) 조성 공사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특히 노동복합시설의 경우는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바 있었는데, 2018년도에 또 다시 사고이월 됨.

〈표12〉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2,064,680	284,219	1,780,443	17	공사 추진중으로 19년 5월 준공
2	노동복합시설 조성	5,645,329	1,772,370	3,233,033	639,924	공사 추진중으로 19년 3월 준공

- 이처럼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도말에 반복 이월하는 행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이월’ 제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4)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불용률은 2016년도 8.4%, 2017년도 7.3%, 2018년도 6.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1%보다는 높은 수준임.

〈표13〉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현액(A)	146,275	226,362	248,674
집행잔액(B)	12,292	16,563	14,994
비율(B/A)	8.4	7.3	6.0

- 집행잔액의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14〉 2018년도 주요 불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1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15,000	2,829	18.9%	사업성과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에 맞춰 예산 교부함에 따라 일부 미교부액 발생하였으며,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자치구 내부 상황(사업 변경, 구비 미확보 등)에 의해 일부 예산 불용액 발생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2	일자리 해커톤 운영	150	46	30.9%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재무과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액이 조정되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온라인 홍보에 집중함으로써 홍보물 인쇄비 등 절감
3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 (시민참여)	240	88	36.5%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제 청년채용 수요가 있는 탐방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대상기업 수 조정으로 집행잔액 발생(64개 기업 310명 기업탐방)
4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운영	120	30	25.0%	관리비 지출 후 집행잔액
5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제도 운영	125	28	22.4%	상담실적은 증가(17년 3,411건→18년 3,957건)하였으나 노동옴부즈만 추가 위촉,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추가 설치 등으로 여러창구를 통한 상담제공으로 이용자 분산
6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1760	430	24.4%	소셜벤처 민관협력 사업 최초 실시로 공모지원자수 부족 및 심사 탈락업체 발생 등 예산불용

- 이 중 ‘일자리해커톤 운영’과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시민참여) 사업의 불용률은 30%를 넘고 있어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된 정책적 목표와 의도를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5) 사업별 검토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 다양한 공공일 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에게 일 경험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고자, 2013년도 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임.
- 2018년 추진된 뉴딜일 자리는 총 302개 사업, 5,281개 일자리로 목표³⁾ 대비 96.9%의 실적을 달성했고, 참여자에게 직무교육, 취·창업교육,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였음⁴⁾.
- 2018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856억 4천 8백만원의 예산 중 782억 7백만원(91.3%)을 집행하고, 74억 4천 1백만원의 잔액이 발생 했음.

〈표15〉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85,648	78,207	78,207	-	7,441	8.7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9,717	38,434	38,434	-	1,283	3.2

3) 총 270개 사업, 5,405명 목표

4) 참여자는 생활임금(2018년 기준 시급 9,220원) 보장, 최대 23개월까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근무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사무관리비	4,878	3,471	3,471	-	1,407	28.8
민간경상사업보조	27,413	22,699	22,699	-	4,714	17.2
자치단체경상보조	13,440	13,434	13,434	-	7	0.1
시설비	200	169	169	-	31	15.5

- 불용액 규모로 보면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불용액(149억 9천 4백만원)의 절반 수준이며, 2018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50억원⁵⁾보다 많음.
- 집행잔액의 63.3%는 민간기업 맞춤형,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등 민간기업과 연계한 공모사업에서 발생하였음.
- 결국 불필요한 추경 편성으로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한 상황이 되었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은 2015년 203억원 규모에서 계속 증액되어, 2019년에는 921억으로 4.5배나 증가했음.

5) 추경을 통해 대학-기업 연계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 성신여대 등 17개 대학 650명 일 경험 참여, 100명 정규직 채용

〈표18〉 최근 5년간 뉴딜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세부사업수	선발 인원	사업비	집행률
2015	45개 사업	1,730	203억원	78.1
2016	78개 사업	2,160	251억원	85.7
2017	266개 사업	5,294	679억원	84.5
2018	279개 사업	4,140	856억원	91.3
2019	260개 사업	5,405	921억원	-

- 투입 예산의 증가만큼 참여자의 경력형성과 민간일자리 진입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밖에 2017년 정부 일자리 추경에 발맞춰 신규 편성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이 2018년 28억 3천만원(19.8%)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 이는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변경이나 구비 미확보 등 자치구별 내부 상황이 있었기 때문임.

〈표19〉 2018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5,000	12,170	12,170		2,830	18.8
사무관리비	800	567	567		233	29.1
자치단체경상보조	11,200	9,739	9,739		1,461	13.0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	1,864	1,864		1,136	37.9

-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만큼,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어 낭비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나. 일자리해커톤 운영

- 일자리해커톤⁶⁾은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 중 1억 4백만원(69.1%)을 집행하고 4천 6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액이 조정되었고, 온라인 홍보로 인해 홍보물 인쇄비 등이 절감되었기 때문임.

6)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ethon)의 합성어로, 쉽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협업프로젝트를 말함

〈표20〉 일자리해커톤 운영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50	104	104		46	30.9
사무관리비	50	26	26		24	48.2
행사운영비	100	78	78		22	22.2

- 이 사업은 2016년 무박 2일로 행사를 개최한 이후, 2017년부터는 1일 규모의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축소된 바 있음.
- 2018년에는 행사운영비 예산을 절반 규모로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전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나야 할 것임.

다. 취업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시민참여)

-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강소기업을 탐방하고 인사담당자의 취업특강을 통해 고용시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으나, 63.3%만이 집행되어 8천 8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집행잔액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제 청년채용의 수요가 있는 탐방 기업만을 선정함에 따라 대상기업 수를 조정했기 때문임.

〈표21〉 2018년 취준생 강소기업 탐방 등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40	152	152		88	36.7
사무관리비	240	152	152		88	36.7

- 이 사업을 통해 총 64개 기업에 310명의 취업준비생이 탐방했으며, 해당 기업탐방 후기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강소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했음.
-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인 만큼, 투입 예산의 절감보다는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더 많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강소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라. 노동복합시설 조성

- 노동운동사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시설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조성·운영 중임.
- 2016년 6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건물 설계용역, 2018년 2월 리모델링 공사 후, 2019년 4월 개관함.

〈표22〉 전태일 기념관(노동복합시설) 개요

-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 수탁기관 : (재)전태일재단
- ▶ 개관일 : 2019년 4월 30일
- ▶ 규모 및 층별용도 : 지상6층 / 연면적 1,916.15㎡(토지 553.1㎡)

구분	면적	입주계획	
1층	392.96㎡	전태일 기념관	수장고, 주차장, 기계실 등
2층	369.86㎡		공연장, 사무공간
3층	409.09㎡		전시실
4층	409.09㎡	노동 허브	
5층	266.08㎡	서울노동권익센터	
6층	70.10㎡	사무 및 휴게공간	

- 2018년 예산현액 67억 8천만원 중 27억 1천만원을 지출했으며, 32억 3천 3백만원은 사고이월되고, 8억 3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12.4%)을 남겼음.

〈표23〉 2018년 노동복합시설 조성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781	5,943	2,710	3,233	838	12.4
사무관리비	50	35	35	-	15	30.0
공공운영비	27	7	7	-	20	74.1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민 간 위 탁 금	1,008	889	889	-	119	11.8
시 설 비	5,406	4,766	1,631	3,135	640	11.8
감 리 비	240	240	142	98	0	0.0
시 설 부 대 비	50	6	6	-	44	88.0

-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공사비(시설비)에서 발생했으며(6억 4천만원), 시설비 중 1억 9천 9백만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감리비로 변경사용했음.

〈표24〉 2018년 노동복합시설 조성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예산과목			금액		승인 일차	전용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노동복합시설 조성	시설비	4,530,000	142,766		'18-02-14	체계적인 공사 및 안전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함
		감리비	40,000		142,766		
2	노동복합시설 조성	시설비	4,387,234	56,934		'18-04-27	노동정책담당관-4538호 ('18.4.27)에 의한 건설관리용역 (기술자 배치 변경)을 위함
		감리비	182,766		56,934		

- 1차 변경은 건물의 노후화로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공종의 난이도가 복잡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⁷⁾ 용역의 수행이 요구되어, 감리비 1억 4천 3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2차 변경은 당초 용역시행 시 건축, 전기, 통신 분야만을 배치해, 냉·난방/환기/위생/승강기 설비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5천 7백만원을 변경사용함.
- 한편 당초 2018년 말 예정이었던 시설의 준공이 2019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관련 시설비와 감리비 32억 3천 3백만원은 사고이월되었음.
- 2017년에는 사업기간과 공사비 증가로 회계연도 내 발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10억 7천 5백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음.

〈표25〉 2018년 노동복합시설 조성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노동복합시설 조성	6,780,524	2,709,887	3,233,034	867,603	공사 추진 중으로 2019년 3월 준공
시설비	5,405,629	1,630,741	3,134,964	639,924	
감리비	239,700	141,630	98,070	0	

7)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일 경우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가능함.

-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결과 5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노동복합시설은 74점임.

〈표26〉 2017년 노동복합시설 조성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63,000	16,891,817	1,075,329	95,854	도시기반시설본부 검토에 의한 사업기간, 공사비 증가로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시설비 잔액 이월 불가 ※ 2018년12월 준공예정 (공정율 10%)

- 노동복합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잦은 설계 변경과 지연 등으로 예산의 변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 준비 미흡과 계획성 부족으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 자치구와 노동단체의 추천으로 총 50명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취약계층 노동권익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2018년에는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해, 이 중 9천 7백만원을 집행했고, 2천 8백만원(22.4%)이 불용됐음.
 - 이는 옴부즈만의 추가 위촉(2017년 25명→2018년 50명)과,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 노동상담의 창구 다양화로 인한 이용자의 분산 때문임.

- 실제 전년도 대비 노동시설의 상담 실적은 증가했고,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의 이용자는 29%(2017년 7만 1,659명→2018년 9만 2,785명) 증가했음.

〈표26〉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25	97	97	0	28	22.4
사무관리비	125	97	97	0	28	22.4

〈표27〉 최근 2년간 기관별 노동상담 건수

(단위: 건)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북 근로자복지관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 보호센터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2017년	1,439	4,861	2,426	-	3,411
2018년	1,146	9,505	3,102	488	3,957

- 그러나 전년대비 옴부즈만을 두 배나 추가 위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은 16% 증가에 그치고 있고, 반대로 예산은 20% 넘게 불용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사업의 2년간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17년 상담목표 대비 166%의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 결과 성과는 목표 대비 179%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됨.

〈표28〉 최근 2년간 성과지표 달성률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17년	2018년
시민명예옴부즈만 상담실적(명)	옴부즈만 상담건수	목표	2,050	2,200
		실적	3,411	3,957
		달성률(%)	166%	179%

- 이처럼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전년도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바, 효율적인 성과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목표 지향적인 성과지표 수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일자리창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판로개척(사업개발비),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모델 발굴·홍보·판로개척(지역특화),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⁸⁾ 지원(사회보험료) 등 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8) 고용보험료 0.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0.75%, 건강보험료 3.5%, 연금보험료 4.5%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인당 168,400원(9.65%)

〈표29〉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x5,716,000) 7,621,000	(x5,716,000) 7,621,000	(x5,716,000) 7,621,000	(x-) 0	(x-) 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	(x1,680,000) 2,493,800	(x1,680,000) 2,493,800	(x1,680,000) 2,487,010	(x-) 0	(x-) 6,79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특화)	(x292,000) 418,000	(x292,000) 418,000	(x292,000) 418,000	(x-) 0	(x-) 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x878,000) 1,254,000	(x878,000) 1,254,000	(x878,000) 1,254,000	(x-) 0	(x-) 0

-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특화 사업, 사회보험료 사업은 예산을 100% 소진했으며, 사업개발비 사업 또한 679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했음.

- 이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행정수요에 반해, 편성예산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며, 2019년 또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편성했음.

- 사회적경제조직의 핵심 주체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늘어나는 지원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의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할 것임.

- 2018년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495개 (예비)사회적기업과 14개의 자치구에 112억 7천 5백만원(교부율 99.8%)을 지원했음.

〈표30〉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실적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국비:시비)	합계			인증			예비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일자리창출 (75:25)	263	587	7,621	131	332	4,117	132	255	3,504
사업개발비 (70:30)	111	-	2,400	28	-	749	83	-	1,651
사회보험료 (70:30)	121	1,092	1,254	121	1,092	1,254	-	-	-
자치단체 지역특화 (70:30)	· 14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총 418백만원 지원								

-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보험료 사업의 경우는 재정자립도 기준에 의해 예산을 교부받고 있어, 사회적경제 수요가 높은 서울시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불합리한 국고보조 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며, 적정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됨.

사.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⁹⁾를 육성·지원하고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없음.

9) 돌봄·일자리·주거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접목한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표31〉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00	600	200	400	-	-
시 설 비	400	400	-	400	-	-
자치단체자본보조	200	200	200	-	-	-

- 서울시는 당초 자치구 소셜벤처센터의 조성과 지원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자치구의 수요가 많지 않아 서대문구에 2억원을 지원한 후, 잔액 4억원을 시설비로 변경 후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이하 “센터”)”의 조성을 계획하였음.

〈표32〉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금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400,000		'18-08-24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시설비	0		400,000		

- 이를 위해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의 국유개발재산에 약 1,408 m^2 규모의 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약(2018.11.22.)¹⁰⁾을 맺었으나, 연내 조성이 불가능

하여 관련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했음(2019년 10월 개관 예정).

〈표33〉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예산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시설비)	400,000	-	400,000	-	국유개발재산인 역삼나라 A빌딩 일부를 (3~4층) 허브센터로 조성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자체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지연. '19년 공간조성 공사 시행예정

- 이밖에도 서울시는 2018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통해 소셜벤처 지원 사업¹¹⁾을 신규로 추진했으나, 공모 지원자의 부족과 심사 탈락업체의 발생 등으로 24.4%(4억 3천만원)의 불용률을 남겼음.

〈표3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잔액비율(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760	1,330	1,330		430	24.4

10) 서울시 :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공간 제공 및 운영비 지원

한국장학재단 : 고용취약계층에 창업가 교육, 취·창업지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 시설 집기 구입비 지원

11) 소셜벤처기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소셜벤처 사업가 육성, 마케팅 및 투자 유치등의 역할을 하는 소셜벤처 육성 민간지원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5개 수행기관이 선정,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697	697		303	30.3
자치단체경상보조	760	633	633		127	16.7

- “소셜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두 사업은 사업대상의 규모나 수요 등의 정확한 예측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한 바, 각각 전용과 명시이월, 24.4%의 불용률이라는 결과를 낳았음.
- 이는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이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확한 소셜벤처 분야의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 등 사업의 촘촘한 설계와 예산 편성이 요구됨.

IV. 사회투자기금 결산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1) 기금 조성 현황

-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젝트, 사회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2년 설치 후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음.
-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도 대비 36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한 88억 8천 1백만원임.

〈표35〉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2,520	△3,639	9,725	13,364	8,881

(2) 기금 수입·지출 현황

-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액은 222억 4천 5백만원, 지출액은 208억 9천만원이며, 실제 기금운용규모는 지출액과 동일한 208억 9천만원임.

〈표36〉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 결산〉

〈지출 결산〉

구분	예산	결산	비고	구분	예산	결산	비고
계	20,141	22,245		계	20,141	20,890	
전입금	2,600	2,600		투·용자사업비	14,000	13,216	사고이월 1,350
용자금 회수	6,844	5,710		비·용자사업비	130	124	사고이월 5
용자금 이자	480	530		예치금	5,871	7,526	
예금이자 등	186	254		기금관리비	140	24	
예치금 회수	10,031	10,031					
전년도이월금	-	2,489					
기타 수입	-	630	기부금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6억원¹²⁾, 용자금 원리금 62억 4천만원, 예치금 회수 100억 3천 1백만원, 전년도이월금 24억 8천 9백만원, 기타수입 6억 3천만원임.
- 지출은 투·용자 사업비 132억 1천 6백만원, 비·용자사업비 1억 2천 4백만원, 예치금 75억 2천 6백만원, 기금관리비 2천 4백만원이며, 투·용자사업비 중 13억 5천만원, 비·용자사업비 5백만원 등 총 13억 5천 5백만원이 사고이월됨.

12) 전입금 26억원은 주택건축국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으로 시의 사회주택사업 참여자에 대한 용자분이며, 주택건축국은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2016~20년) 총 130억원(매년 26억원)을 출연할 예정임.

2.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기금 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말 사회투자기금의 잔액은 88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했음.

〈표37〉 사회투자기금 연도별 기금 잔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말 현재액	37,975	32,757	22,857	9,926	12,520	8,881

- 기금 최초 설치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던 잔액은 2017년 소폭 증가 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19년 130억원을 사회투자기금에 전출하였음.
- 융자금의 회수가 본격화되면서 기금 수입이 다소 증가했으나 2018년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선 바,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는 208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기금 운용규모(201억 2천 8백만원)와 비슷한 수준임.

-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 167억 5천 9백만원 중, 지출액은 133억 6천 4백만원(집행률 79.7%)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천만원, 사고이월액은 13억 5천 5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38〉 사회투자기금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19년이월액	불용사유 (이월사유)
계	16,759	13,364	2,040	1,355	
소설하우징 사업 용자	6,136	3,736	1,900	500	◦ 주택도시기금 확대로 사회투자기금 수요 감소 ('19년도 매칭자금 확보 후 집행예정)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용자	9,330	9,330	0	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53	124	24	5	◦ 비용자사업 집행잔액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1,000	150	0	850	◦ '18년도초기 출자금 15% 집행 및 '19년도 잔여출자금 집행예정
기금관리비	140	24	116	0	◦ 채권관리 수수료 및 사회투자기금 운용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나. 사업별 검토

-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133억 6천 4백만원으로, 이 중 132억 1천 6백만원은 투·용자성 사업비, 1억 4천 8백만원은 비용자성 사업비임.
- 투·용자성 사업비는 용자지원인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와 소설하우징 용자, 임팩트 투자조합의 출자금이며, 비용자성 사업비는 수행기관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중간지원 비용과 기금관리비임.

〈표39〉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	13,364
투·융자성 사업	소 계	13,216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용자 ※ 시기금과 2:1~3:1 민간기금 조성	동작신탁 : 42억원	9,330
	(사)신나는조합 : 14.4억원	
	한국사회혁신금융: 14.5억원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7.5억원	
	한국사회투자 : 6억원	
	(주)비플러스 : 5.1억원	
	더임팩트(주) : 3.8억원	
소셜하우징 용자	(사)나눔과미래 : 20억원	3,736
	(재)한국사회투자 : 12억원	
	한국사회주택금융대부(주) : 5.36억원	
임팩트투자조합	(주)다담인베스트먼트 : 1.5억원	150
비융자성 사업	소 계	148
사회적금융기관지원	- 사회적금융활성화를 위한 사업보조(융자금액의 1%)	124
기금관리비	- 채권관리용역 및 담보설정 등 수행	24

- 융자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와 소셜하우징 용자는 서울시가 ‘사회 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연 2회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0%의 금리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은 기금과 1:1~3:1(기금 : 민간자금)로 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됨.

- 서울시는 2018년 상반기 6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57억원(市 기금 40억원-매칭 17억원), 하반기 7개 수행기관에서 98억원(市 기금 71억원-매칭 27억원) 등 총 155억원 규모의 융자성 사업비를 조성했음.

(1)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 서울시는 2018년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수행기관으로 동작 신탁 42억원, (사)신나는조합 14억 4천만원 등 총 7개 기관에 93억 3천만원을 융자하였고, 각 기관은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에 최대 연 3%의 금리로 재융자하고 있음.
- 이들 수행기관은 67개 사회적기업과 프로젝트에 48억 2천 1백만원을 재융자했으며, 이는 62개 기업에 51억 1천 8백만원을 재융자한 2017년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임.
- 또한 수행기관이 사회적기업에 지원(재융자)한 자금이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융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어, 사회투자기금의 당초 목적인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소셜하우징 용자

- 소셜하우징 용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투자 기금을 통해 소셜하우징 관련 사회적기업에 용자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기업에 최대 3%, 8년 상환(최대 2년 거치)의 조건으로 채용자함.
- 2018년에는 수행기관인 (사)나눔과미래에 20억원, (재)한국사회투자에 12억원, 한국사회주택금융대부에 5억 3천 6백만원 등 총 3개 기관에 37억 3천 6백만원을 용자하였음.
- 수행기관은 주택관련 사회적기업 2곳에 6억 5,860만원을 채용자한 바, 이는 소셜하우징 지원 수행기관이 하반기(11월)에 선정되어 채용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행기관을 조기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 한편 소셜하우징 용자 기금 중 5억원은 사고이월된 바, 이는 주택도시 기금의 확대로 사회투자기금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임.
- 실제로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용자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실제 용자 건수와 금액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소셜하우징 용자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40〉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기금융자 내역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기업수 (수행기관수)	5	6	16	9(3)	2(3)
용자금액	4,012	5,883	7,644	2,828	3,736

- 또한 소셜하우징 용자 사업은 주택사업의 특성상 장기프로젝트가 많아 최대 8년의 상환조건으로 용자하는 만큼, 용자금 상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사회주택사업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3) 임팩트 투자조합

- 임팩트 투자¹³⁾를 통해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소셜 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10억원의 출자를 계획했음.

〈표41〉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 조합명 :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 ▶ 운용사 : 다담인베스트먼트
- ▶ 조성규모 : 145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원, 대전시 1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 ▶ 존속기간 : 8년
- ▶ 출자현황('19.5월) : 83.38억원(조성규모의 57.5%)
 - 서울시 5.75억원

13) 수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

- 임팩트투자는 사회적기업을 투자·발굴하고 성장시켜 자금을 회수하는 사회적금융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서울시는 해당 투자조합 결성(2018년 11월) 초기, 조합원들과 15%만 우선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예산현액 10억원 중 초기 출자금 1억 5천만원만을 지출하고, 잔액 8억 5천만원¹⁴⁾은 이월했음.
- 최초의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이었던 만큼, 기금운용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장조사를 통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
- 한국의 임팩트 투자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소셜임팩트 투자를 시작한 만큼, 당초 투자조합의 조성 목적과 같이 사회적금융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임.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14) 잔액은 2019년 모두 집행할 예정임.